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남녀청년들이 온 나라 청년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기념사진촬영에 앞서 당과 수령에 대한 지극한

충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 아름다운 도덕기풍을 발양하는데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김동철, 최금주, 함영호, 김은심, 박정금, 김준철, 조복향, 장정화, 안명국, 안경희, 리은별, 리종철, 리경심, 리은성, 김경애, 김광일, 송윤희, 김광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소행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면서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미풍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청년들을 혁명적인생관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 핵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청년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혁명선렬들처럼, 당의 부름이라면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발지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간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처럼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움으로써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슬기를 남김없이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동강자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동강자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자라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실태에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 대동강자라공장을 돌아보시며 이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약재로만 쓰이던 자라를 먹일수 있게 되었다고 것처럼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눈물겨운 사연이 깃들어있는 공장이 어떻게 되어 이런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민물왕새우를 기르라고 종자도 보내주었으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지만 공장에서는 2년이 지나도록 양식장을 완공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공장일군들의 무능과 굳어진 사고방식, 무책임한 일본새의 발로이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기문제, 물문제, 설비문제가 걸려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너두리라고 하시면서 공장일군들은 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 공장에서처럼 일을 해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실현할수 없고 나중에는 당의 권위까지 훼손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동강자라공장을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보는 공장, 선진적인 양식방법과 기술이 도입된 우리 나라 양식의 본보기단위로 전면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자라공장에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양식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전력보장대책을 바로세울데 대한 문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자라알개우기 설비를 제작하고 방역시설들을 그쁘히 갖추어놓으며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문제, 먹이문제를 100% 국산화할데 대한 문제, 양식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문제 등 공장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본사기자

존엄높은 우주정복의 길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오늘날 우주정복은 나라들에서 국가발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국제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우주산업으로 얻는 막대한 경제수익은 세계적 인 우주개발경쟁열을 날을 따라 활발해지게 하고있으며 우주인간과 인류와 더욱 가까와지고있다.

일찌기 강성국가건설에서 우주정복의 원대한 구상을 설계하고 우주개발의 새 역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우리 나라는 이미 자기의 독자적인 힘과 기술로 우주정복의 길에 들어섰고 오늘날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지도밑에 우주강국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도약하고있다.

우주강국건설을 지향하고있는 조선은 우주개발과 관련한 국가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는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있다.

지난 5월 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현지를 찾으시고 모든 건축물들과 관제시설의 요소소요들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성들을 원만히 쏘아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제기지가 건설된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실용위성개발과 발사, 관제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우주과학발전과 위성개발 기술수준은 해당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척도의 하나로 일컫는다.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지난날 힘이 약해 망국노의 운명을 겪어야 했던 우리나라가 오늘은 자력으로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리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이른 것은 반만년민족사의 기적적이고 사변이다.

조선의 위성개발 및 발사국의 지위는 누가 부정한다 해서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수궁하거나 잡자고 있을것이 아니다. 우주정복과 평화적

인 위성개발은 조선이 결심하고 택한 길이고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하는 최첨단돌파전이며 세계에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자주적권리행사이다.

우주조약과 같은 국제우주법에도 규제된바와 같이 우주공간의 평화적개발과 리용은 모든 나라들의 신성한 평등적, 합법적권리다.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가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평화적목적의 위성

을 우주에 쏘아올리는데 대해 시비하고 간섭할 일이 아니다.

공화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위성제작, 발사기술에 대해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고있다.

새해전 《광명성-3》호 2호기를 발사했을 때 세계는 조선 위성열풍으로 들끓었다. 스위스의 각계인사들은 조선위성발사성공은 김정은원수의

령도의 승리이며 조선의 자립적인 과학기술의 위력을 과시한 주요사변이다.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다. 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의 부당하고 범죄적인 위협에 절대로 굽어들지 않는다고 동경했고 브라질에서는 조선의 위성발사성공은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주적인 평화적 우주개발권리를 정당히 행사한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씨야신문 《네자비세마야 가제

따》는 주체사상이 우주에 도달했다, 조선은 로켓발사를 탄도미사일제작의 기술적시험으로 보고있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별로 놀라지 않고있다고 평하였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고 력사의 정의다. 자주권을 잃은 나라와 민족은 죽은것이나 다름바 없다는것은 인류사가 보여주는 진리이고 우리 민족의 과거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그 누가 압력을 가한다 해서 해야 할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하는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없는것이 조선의 자주적대이다. 공화국인민은 반세기이상을 헤아리는 장구한 기간 온갖 적대세력의 정치, 군사, 외교적압력과 위협공갈, 가혹한 봉쇄와 제재를 동반한 전대미문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추호도 타협하거나 용서치 않았다.

지금 적대세력이 조선에서 위성관제종합시설을 새로 세운것에 대해 덴갑해하며 《탄도미사일발사준비의 한고리》,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지휘시설》이라고 악랄히 시비하는것은 뿌리깊은 대결의식과 체질적인 거부감의 발로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고 횡포한 내정간섭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강권이나 전횡도 당당한 우주개발국의 존엄과 권리를 건드릴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명하신것처럼 조선의 위성은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련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올를것이다.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겠다는것이 조선의 대답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 설

주제 102(2013)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다.

그날 현지에서 도착하시어 그동안 공장에서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리는데 대해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이속하여 그곳 일꾼들에게 생산공정을 꾸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종업원들의 생활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생산이나 공장관리운영보다도 생산자들의 생활문제부터 헤아리시는 그이께서는 그곳 노동자들의 세대수에 이르기까지 살림집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고계시였다.

노동자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생산문제를 론의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제품본실에 들리시였을 때에도 노동자들의 살림집문제, 합숙문제에 대해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생산량을 끊임없이 늘이자면 생산

생활문제가 기본이다

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자신께서 책임지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부지도 정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조치하시였다.

그날로부터 몇 달 후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인민군대의 건설력량에 의해 공장에 노동자들을 위한 합숙이 훌륭하게 건설되게 되었다.

어느날 그 공장을 다시금 찾으시신 원수님께서는 번듯하게 새로 일떠선 합숙을 보시고 정말 멋있다고 하시며 최고사령관이 공장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내부를 돌아보시면

서는 홀과 복도의 층고가 알맞춤하고 녀성들의 취미에 맞게 선택한 안온한 벽색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합숙생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침실은 물론 도서실도 잘 꾸려놓았다고, 목욕탕을 손색없이 건설했으며 식사실은 연회장같이 꾸렸고 주방에 갖추어 놓은 설비들도 현대적이고 최

신식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또한 합숙생들이 휴식과 오락, 체육을 할수 있게 꾸린 공원을 보시고는 마치 무릉도원 같다고도 하시였다.

합숙을 노동자들의 궁전, 노동자들의 호텔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감을 안겨주기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각하며 더 많은 천을 생산하면 된다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도서실



목욕탕



주방칸

작년 여름에 나는 백두산을 탐방했다.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누구나 감복하는바이지만 백두산에 올라본 감흥은 이룰데 없다. 백두의 일출, 흰 갈기같은 눈보라, 서리꽃, 천지호반에 드리우는 쌍무지개, 만병초, 폭포, 온천 등은 볼수록 절경이고 장관이다. 삼천리강토의 지맥이 시원하게 흐르고 민족의 정신이 솟아나오듯 하여 예로부터 조종의 산으로 불리운 백두산이다.

인물은 지령이라는 말이 있다. 걸출한 인물, 훌륭한 인물은 땅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타고난다는 뜻으로 좋은 땅에서 위인이 난다는 말이다.

백두산의 소백수풀을 찾으면 그 의미를 재삼 절감케 된다.

그 곳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셨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대전을 벌리시어 조국해방의 령명이 태동하던 격동기에 온 민족이 추앙한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그분께서는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천품으로 타고나셨고 항일성전의 총성이 울리는 격전장과 더불어 슬기와 담력, 배짱과 같은 령장의 기품을 체현하셨다. 서리발비긴 돌풍으로 불순한 잡것을 말끔히 쓸어던지고 대지에 청신하고 순결한것만을 남겨놓으며 그 무엇이 앞을 막아도 맞받아갈기며 맹렬히 불어치는 눈보라에는 한평생 공격정신으로 애국위업을 이끄신 주석님과 반공화국적대세력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관용과 자비를 모르는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으로 정벌하신 장군님의 절세위인상이 그대로 비껴있다.

푸르청청한 하늘에서 내려찍는 해살을 받아 천지호반을 한 폭의 그림자나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하다가 샅시에 질은 안개로 주위를 덮고 기암절벽의 등허리를 감돌며 신선들이 노

닌다는 하늘나라를 만들기도 한다. 천하를 깨치는 퇴성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소낙비와 우박을 삼단같이 퍼부어 사위를 한치않도 가려 볼수 없게 먹장세계에 잠겨게 하는듯 하다가도 눈부신 해빛속에 칠색령룡한 무지개가 서리는 천지호반의 변화무쌍한 기상은 그대로 김정은원수님의 신축성있는 림기응변의 지략과 령활무쌍한 령군술을 련상케 하는듯싶었다.

정말이지 백두산의 웅자와 기상은 절세위인들의 위인상 그대로다.

나는 종종 심혼을 가다듬을 때면 노래 한곡을 흥취나게 부르곤 한다.

장백의 산발을 넘어 압록강물결을 넘고넘어 꿈에도 달려가는 사랑하나는 나의 조국아 태양민족 그 자랑 안고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삽니다

노래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삽니다》는 우리 재중동포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다. 우리만이 아닌 전체 조선민족의 마음이 담긴 노래라고 할수 있겠다.

절세위인들의 존함과 위인상으로 상징되는 백두산하늘아래 사는 우리 민족은 무궁도록 존엄높고 자랑높다는것을 나는 부언한다.

권 남 수(재중동포)

본사기자 리 설

숨 고 한 인 덕 정 치 의 빛 발 아 래

(전호에서 계속)

그 품 떠나 못 살아

얼마전 우리 유가족들은 아버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인생 전환을 한 뜻깊은 날을 맞으며 애국렬사릉에 올랐습니다.

태어난 곳, 걸은 인생길은 서로 달라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에 영생의 닦을 내린 애국렬사들의 모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 통일애국의 길에 한몸 내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오를 수 있는 삶의 절정은 어디인가 하는 력사의 진리를 뚜렷이 새겨주는 애국렬사릉.

렬사들의 삶과 넋을 길이 빛내어주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상징인 애국렬사릉에 올라 아버지의 묘비앞에 서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당만을 따라 충정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온 저의 아버지에 대한 남다른 정을 안으시고 각별한 사랑이 눈앞에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 올랐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전사를 자신처럼 믿으시고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마사로운것인가를 시험의 나날 아버지는 더더욱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량강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였습니다.

저의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전망문제들이 나설 때 웬일인지 순조롭게 되어가던 일들이 원인모르게 꼬이곤 하였습니다.

웬간한 일은 대범하게 넘기고 사업에만 전심하던 아버지였지만 자식들의 장애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여 가슴속생각을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고 우울하게 지낸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도당으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당에 도착하니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저의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고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태무동무에 대한 은정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어머니장군님께서요?》

뜻밖의 사실에 놀라움과 걱정을 금치 못해하는 아버지에게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는 은정어린 조치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의 아버지의 일

신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아시게 되시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급히 결론을 기다리는 일감을 밀어놓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일부 편협한 일군들때문에 마음속고충을 겪고 있을 저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그이의 가슴은 미여지는듯 하였습니다.

애국의 불타는 지향을 안고 꿈결에도 그리운 위대한 수령님의 품, 어머니조국의 품을 찾아와 애국충정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난 강태무동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는가.

많은 품을 들여 자료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의 아버지가 생활에서 문제시되는것이 없다는것을 보증해주시면서 해당 당조직에 이상의 사실을 통보해주도록 세심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그 사연을 전해들으며 아버지는 《장군님!》 하고 목메여 부르며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습니다.

평소에 강직하고 과묵한 아버지였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속고충까지 깨닫이 가 서주시는 해빛같은 장군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울고 하늘같은 그 믿음이 가슴을 적시어 울었습니다.

정녕 세상에 다시 없을 위대한 동지에, 인덕의 새 력사가 창조되는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이수령님을 따라 충정의 한길을 걸어온 저의 아버지를 조국과 인민앞에 애국자의 모습으로 떳떳이 내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 품 한생토록 따듯이 보살펴주고 내세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96년 5월 어느

날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공화국 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배치하여 자기가 체험한 력사적사실들을 가지고 인민들을 교양하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방후 남조선에서 두 대대장이 장병들과 함께 공화국의 품으로 의거입북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큰 공로를 세운데 대하여 가슴뜨겁게 추억하시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대대장까지 하였지만 진심으로 수령님을 존경하고 호모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동경하였기때문에 1949년 5월 자기 대대장병들을 데리고 공화국북반부로 의거입북하였다. 그때 그들을 환영하는 사업을 굉장히 하였다. 그들의 의거입북은 적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새 조선을 건설하는 우리 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로 되었다. 그후 그들은 인민군대에 편입되어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적들과의 싸움도 잘하였다.

계속 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은 인민군대에 있을 때 소장의 군사칭호를 달고있었으므로 복대시킬 때에는 중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고 교양마당에 내세우면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주는 영향도 클것이라고 교시하시었습니다.

이렇듯 고결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저의 아버지의 애국적소행이 다시금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이 받아안은 또 하나의 크나큰 믿음이고 영광이

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가 예나지금이나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하시며 김일성훈장수훈자, 조국통일상수상자, 공화국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고 고급승용차를 안겨주시분도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온 민족과 인류가 최대의 명절로 경축하는 자신의 탄생일은 늘 보통날처럼 지내시면서 온 전사들의 생일은 꼭꼭 기억하시고 은정과 축복을 돌려주시는 여기에 우리 장군님의 특유한 인정미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모의 생일상은 자식들이 차려주는것으로 되어있건만 저의 아버지가 예순셋과 일흔셋 생일을 맞을 때마다 생일상을 차려주시고도 사람이 일흔을 넘긴 다음에는 여든까지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며 일흔다섯살 생일상까지 보내주시는 장군님이시었습니다.

본인은 물론 온 가족까지도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고결한 인품, 동지애에 아버지가 감격의 눈물을 흘린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장군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던 저의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에는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소생시키기 위해 500여일간이나 치료전투를 벌리도록 하시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애국렬사릉에 안치하여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기에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국대표단성원들은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서방에서는 1949년에 남조선군 두개 대대를 데리고 의거한 사람들에게 대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소문이 나돌고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당시 대대장이었던 강태무를 만나보고 령도자의 사랑속에 의거입북자들이 서방세계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있는가를 직접 목격하였다. 이에 대한 책을 써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저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 믿음과 사랑은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한몸에 안아 자신처럼 믿어주는 하늘같은 믿음이며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인간사랑의 최고정화입니다.

어머이수령님에 의해 시작되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더욱 뜨거워진 저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은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궁궐같은 창전거리의 새 살림집을 받아안은 우리 유가족들은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이 하도 고마와 눈물로 두볼을 적시었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지니시었던 태양의 빛과 열을 다 안으시고 더욱 찬연히 뿌려주시는 오늘의 어머이수령님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대대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사는 우리 유가족들의 애국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위업에 한몸 바쳐나선 사람들과 그 후대들을 전우로, 동지로 불러주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대해같은 믿음은 세세년년 전해가며 우리 후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민족자주위업, 통일애국위업수행에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갈것입니다.

강윤희

(끝)



강원도 원산시의 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송도원은 오래전부터 으뜸가는 해수욕장으로 널리 알려진 명당이다.

《백사청송》이라 부른 송도원에는 소나무숲이 눈부시게 펼쳐져있고 그 앞으로는 사시장철 맑고 푸른 바다물이 출렁이고있다.

보석도 닭야야 빛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명당이라 소문난 곳도 가꿔주고 빛내어주는 손길이 있어야 명당으로서의 가치를 가질수 있는 법이다.

송도원은 오늘 국제소년단야영소가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의 명당으로 그 이름이 더욱 빛나고있다.

해방직후 송도원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송도원이 과거에는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유흥장으로, 돈벌이 장소로 리용되었지만 오늘은 나라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유원지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휴양지로 잘 꾸밀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후에는 소년단야영소를 송도원의 제일 경치좋은 곳에 잘 건설하여야 한다시며 그 건설을 발기하고 터를 정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현지지도과정에 명당자리에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

동해명승에 세워진 만점짜리 야영소

세워진 만점짜리야영소, 당에서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지어준 사랑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야영소를 후세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꾸리도록 깊은 관심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 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적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시었다.

언제나 어린이들에게 제일 큰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대적으로 개건할데 대해 발기하시고 몸소 현지에 여러차례 나오시여 개건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 그리고 개건된 야영소가 준공하는 날에는 나라이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에서 수백리 멀리 떨어진 이곳 야영소를 찾으시여 준공식에 참가하시고 온 하루동안 아이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

쁨을 나누시었다. 전자오락실과 도서실, 미술실, 솜씨전람실과 물놀이장, 체육관과 야외활쏘기장을 비롯하여 모든 시설들이 최상급의 조건에서 갖추어져있는 야영소는 명실공히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각계층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종합적인 야영기지이다.

미국의 CNN방송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하면서 《울어름에는 별찬 자식들을 달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으로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통해본 조선의 현실은 서방의 약선전과는 얼마나 판이한가. 아이들의 왕국인 조선의 현실을 엿보게 하는 산증거이다. 야영생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오아시스와 같다.》고 전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

소는 조선의 아이들만이 아니라 외국의 어린이들도 즐겨찾는 아이들의 《천국》으로 되고있다.

아름다운 동해명승 송도원의

절승경관을 더욱 돋구어주는 아이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안겨주는 공화국에서만 들을수 있는 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조국의 품을 떠나 우린 못삽니다

나는 온 나라 아이들이 행복에 겨워 목청껏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가 어제날 저주로운 남쪽땅에 끌려갈뻔 하였던 우리 9명 동무들의 심장속에 그토록 소중하게 자리잡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사조를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

온 세상이 보란듯이 새 교복을 떨쳐입고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인쇄공업대학의 드넓은 교정에서 보람찬 배움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저희들은 언제나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곤 합니다.

5월 28일은 저희들이 바람세찬 이국땅에서 피뢰정보원놈들에 의해 현대관 노예와도 같은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다가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으며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삶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워 저는 꿋꿋이 서서 가슴속 격정을 온 세상에 터치려고 미숙하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1

예로부터 부모없는 아이들을 가리켜 고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아는 자기를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따뜻한 품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낳아준 친부모의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2살 나던 해 량강도 혜산시의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던 저의 부모들은 뜻밖에도 일어난 화재속에서 공장 기계를 지켜내려고 한낱한시에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올려도 보지 못하고 육아원과 애육원을 거쳐 초, 중등학교까지 보육원, 교양원선생님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육아원의 포근한 침대와 애육원의 아담한 놀이터, 초, 중등학교의 넓다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공부하던 그 시절 저는 정말이지 복속에서 복을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부모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구김살없이 안아 내세워주는 나라의 은덕을 그저 웅대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부하기 보다는 놀음에 빠져 돌아다니기가 일쑤였고 중등학교시절부터는 학원에서 몰래 도망쳐나와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며 방랑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2011년 12월 어느날, 압록강변에 나와 아이들과 함께 썰매타기에 여념이 없던 저는 폭이 좁은 반대편 기슭에서 그 누군가가 찾는 소리에 별다른 생각이 없이 몇몇 아이들과 함께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의 손에 색다른 간식까지 쥐여주며 자기가 가지고온 소형헬기를 타고 장백저리를 한바퀴 빙 돌고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성없이 사나이의 친절할 꾀임에 넘어가 차를 탔는데 얼마간 달린 후 차에서 내려보니 그곳은 놈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뿐 아니라 너희같은 애새끼들을 더 많이 끌어다가 머리통을 까서라도 자본주의가 좋고 성경이 좋다는것을 쓸어넣을줄 알라고 입에 게저품을 물고 떠벌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장하진놈은 이웃나라 국경연선에 동지를 틀고있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유괴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피뢰정보원 꼬나불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생활력을 가진 1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근 2년째 우리안에 갇힌 짐승같이 생활하면서 그 년놈들에게 피눈물나는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감옥같은 방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17시간동안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고문이었습니다.

말뚝을 전혀 알수 없어도 무작정 읽어야 했고 말뚝을 바로 알자고 물어봐도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놈들은 성경 읽기가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호되게 들이치며 피투성기로 만들었고 찬송가를 부를 때 잠을 자는 아이의 귀를 비틀어 찢어지게 하였으며 저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구정물을 머리에 들쑤우게 하는 치떨리는 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습니다.

한편 놈들은 우리들에게 저들이 하라는대로만 하면 돈도 주겠다고 하면서 얼굴에 삶의 웃음을 띠우며 우리를 살살 얼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장하진놈의 소굴에 들어선 순간부터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마음놓고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조롱속에 갇힌 병든 새와 같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성별에 가림없이 몇년씩이나 한집에 가두어놓고있는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품시 두려워하던 놈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조용조용하게 생활할것을 요구했고 우리들이 매를 맞으면 제손으로 입에 수건을 틀어막고 소리없이 울음을 삼키도록 강박하였습니다.

특히 놈들은 우리에게서 친진한 동심을 빼앗고 비록 불효자식들이라 해도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있는 고향과 조국의 늠름 송두리채 뽀아 없애려고 악착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어느날 장하진놈은 우리에게 아침기도시간에 평양의 만수대 언덕에 교회당을 세우게 해달라고 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들중에는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가본 아이는 한명도 없었지만 그곳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는것만은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뻔하였습니다.

그러자 놈은 《빨갱이새끼》, 《공산스파이새끼》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무섭게 매질하였고 하루종일 물 한모금 주지 않고 졸딱 굶기는 가혹한 벌을 주었습니다.

그때 신원이년은 너희들을 몇년씩 집에 끼고있으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것이 뭐가 고와서 그러는줄 알아, 너희들이 북에 복음을 전파시켜 앞으로 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지껄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뿐 아니라 너희같은 애새끼들을 더 많이 끌어다가 머리통을 까서라도 자본주의가 좋고 성경이 좋다는것을 쓸어넣을줄 알라고 입에 게저품을 물고 떠벌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놈은 서울지시대 몇명정도가 아니라 수십명의 청소년들을 한꺼번에 끌고나갈 계획이었는데 그레아 정치효과도 크고 목돈도 벌 수 있었기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북한자유연합》 대표 슈잔 솔리년은 장하진년놈들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숨어있는 피뢰정보원의 인신매매군들을 동원하여 우리같은 청소년들을 집단적으로 남조선과 미국으로 끌고가 반공화국 《인권》모락소동에 써먹기 위해 《비상하는 독수리작전》이라는 대호까지 불리고 놀아졌습니다.

머칠후 우리들은 장하진놈의 계획대로 낮모를 사람들의 손에 끌려 어디론가 먼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또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방울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눈먼 송아지》처럼 우리는 이놈에게서 저놈에게로 돈봉투와 함께 넘겨지면서 짐짝처럼 차에 실려워 며칠씩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숨이 턱에 닿아 할딱거리며 무인지경을 오래동안 뛰어가기도 하였고 높은 산도 몇개를 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날 주재국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잡혀있는 이 못난 자식들을 찾아 우리 외교

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구류장 한쪽구속에 몰려선채 속이 조마조마해있었습니다.

제멋대로 조국을 떠나 이역땅에서 생활하다가 머나먼 그곳까지 끌려와 잡혀있는것이 죄스러웠습니다.

조국에서 온 일꾼들은 저희들을 말없이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한창 피어나야 할 저희들의 얼굴에 비긴 불안과 회의식, 주눅이 들어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아이들...

드디어 한 일꾼이 내 앞으로 다가와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어서 조국으로 가자!》

나는 목이 짝 메여 아무 말도 못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나왔습니다.

내 옆에 있던 동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놈들에게 잡혀 2년동안 지옥같은 소굴에서 울음조차 소리내어 울지 못하던 저희들이 처음으로 영영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머칠후 저희들은 조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조국이란 무엇이고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이 어떤 품인가를 너무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어머니조국은 우리를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해주었을뿐 아니라 병들고 상처입은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 뜨거운 사랑과 정을 가슴가득 부어주었습니다.

조국에서는 저희들이 도착한 후 병원에 데려다 검진도 하고 치료도 받게 하면서 평양에서 즐겁게 휴식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개선청년공원, 룡파동어관, 류경인민 야외빙상장을 비롯한 유희오락장들에서 마음껏 웃고 떠들며 놀았고 유희관, 청류관, 향만루식당 등 이름난 식당들에서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었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나이와 취미, 소질에 따라 저와 박광혁, 류광혁, 정광영동무들은 고향인 량강도 영웅해산제1중학교에 갔고 미술에 취미가 있는 백영원동무는 함흥사범대학 체육에능학부 미술과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 국경경비초소에 구류되어 운명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나라주재 우리 대사관을 통하여 저희들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조국에서는 저희들 전원을 무조건 데려오도록 조치들을 취해주었습니다.

그러하여 우주공간으로 수많은 무선전파들이 날고 외교인군들과 해당 부문 일꾼들이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하여 적들의 마수에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적들은 적들대로 몇년동안 품을 들여 자본주의물을 먹인 우리들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 남조선으로 끌어가려고 별의별 발악을 다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두고 적아간에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은 끝내 조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느날 주재국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잡혀있는 이 못난 자식들을 찾아 우리 외교 일꾼들이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구류장 한쪽구속에 몰려선채 속이 조마조마해있었습니다.

제멋대로 조국을 떠나 이역땅에서 생활하다가 머나먼 그곳까지 끌려와 잡혀있는것이 죄스러웠습니다.

조국에서 온 일꾼들은 저희들을 말없이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한창 피어나야 할 저희들의 얼굴에 비긴 불안과 회의식, 주눅이 들어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아이들...

드디어 한 일꾼이 내 앞으로 다가와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어서 조국으로 가자!》

나는 목이 짝 메여 아무 말도 못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나왔습니다.

내 옆에 있던 동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놈들에게 잡혀 2년동안 지옥같은 소굴에서 울음조차 소리내어 울지 못하던 저희들이 처음으로 영영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머칠후 저희들은 조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조국이란 무엇이고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이 어떤 품인가를 너무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어머니조국은 우리를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해주었을뿐 아니라 병들고 상처입은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 뜨거운 사랑과 정을 가슴가득 부어주었습니다.

조국에서는 저희들이 도착한 후 병원에 데려다 검진도 하고 치료도 받게 하면서 평양에서 즐겁게 휴식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개선청년공원, 룡파동어관, 류경인민 야외빙상장을 비롯한 유희오락장들에서 마음껏 웃고 떠들며 놀았고 유희관, 청류관, 향만루식당 등 이름난 식당들에서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었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나이와 취미, 소질에 따라 저와 박광혁, 류광혁, 정광영동무들은 고향인 량강도 영웅해산제1중학교에 갔고 미술에 취미가 있는 백영원동무는 함흥사범대학 체육에능학부 미술과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교정에 들어섰을 때 교장선생님은 짐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이 학생들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어 사랑을 주고 정을 주자고 하시며 그날 자기 집에서 새 이불과 담요를 내오고 겨울내외와 신발, 장갑, 혁피 등 색깔과 문양도 똑같은것으로 4조를 마련하여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공훈료리사〉 어머니》라고 애칭을 붙여놓은 주방의 료리사어머니는 정말로 우리의 구미에 맞게 음식도 맛있게 해주었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고열로 심하게 앓아누웠을 때에는 생선국을 끓여와 입으로 훌훌 불어 제입에 떠넣어주면서 《앓으면 큰 일이야.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공부를 해야지.》라고 따듯이 말해주었습니다.

도안의 간부아저씨들도 한주일에 한번씩 꼭꼭 학교에 내려와 우리의 학업성적도 료해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절끔 나오도록 엄하게 타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제가 지금껏 보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의 따스한 정을 점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조국은 우리들에게 약동하는 배움의 새 생활단이 아니라 정신적자양분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저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에 대한 현지도의 길에서 우리 고향 량강도, 삼지연군을 찾으시였다는 꿈같은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일먼저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찾아주시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원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고싶어왔다고, 어서 가까이 오라고 두팔벌려 다정히 불러주시는것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뵈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고향땅에 모신 기쁨으로 하여 누구보다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헤아려 학교에서는 곧 삼지연현명전적지에서의 답사를 조직해주었습니다.

그때 우리와 만난 강사선생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시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가 백두산의 칼바람맛을 봐야 한다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특히 백두산기슭에서 나서 자란 새 세대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백두산기슭에서 나서 자란 새 세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러주신 영광의 대오에 우리도 서있다, 우리는 백두산기슭에서 나서 자란 원수님의 아들딸이다, 백두산기슭의 새 세대답게 공부도 힘일빨찌산식으로 하여 꼭 백두산강국을 빛내이는 인재가 되리라...

(5면으로 계속)

의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었습니다.

낮에는 교실과 도서관에서, 밤에는 기숙사호실에서 자정이 넘도록 우리에게 공부를 배워주고 우리가 정신없이 꿈나라에 가있을 때면 차던진 이불도 바로덮어주며 혈육의 정을 다 해주신 고마운 선생님!...

담임선생님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교정에 들어섰을 때 교장선생님은 짐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이 학생들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어 사랑을 주고 정을 주자고 하시며 그날 자기 집에서 새 이불과 담요를 내오고 겨울내외와 신발, 장갑, 혁피 등 색깔과 문양도 똑같은것으로 4조를 마련하여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공훈료리사〉 어머니》라고 애칭을 붙여놓은 주방의 료리사어머니는 정말로 우리의 구미에 맞게 음식도 맛있게 해주었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고열로 심하게 앓아누웠을 때에는 생선국을 끓여와 입으로 훌훌 불어 제입에 떠넣어주면서 《앓으면 큰 일이야.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공부를 해야지.》라고 따듯이 말해주었습니다.

도안의 간부아저씨들도 한주일에 한번씩 꼭꼭 학교에 내려와 우리의 학업성적도 료해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절끔 나오도록 엄하게 타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제가 지금껏 보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의 따스한 정을 점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조국은 우리들에게 약동하는 배움의 새 생활단이 아니라 정신적자양분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저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에 대한 현지도의 길에서 우리 고향 량강도, 삼지연군을 찾으시였다는 꿈같은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일먼저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찾아주시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원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고싶어왔다고, 어서 가까이 오라고 두팔벌려 다정히 불러주시는것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뵈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고향땅에 모신 기쁨으로 하여 누구보다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헤아려 학교에서는 곧 삼지연현명전적지에서의 답사를 조직해주었습니다.

그때 우리와 만난 강사선생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시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가 백두산의 칼바람맛을 봐야 한다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특히 백두산기슭에서 나서 자란 새 세대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백두산기슭에서 나서 자란 새 세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러주신 영광의 대오에 우리도 서있다, 우리는 백두산기슭에서 나서 자란 원수님의 아들딸이다, 백두산기슭의 새 세대답게 공부도 힘일빨찌산식으로 하여 꼭 백두산강국을 빛내이는 인재가 되리라...

(5면으로 계속)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 최창욱 만수교고기상점 지배인과 나눈 이야기 —

유유히 흐르는 보통강의 모습이런가 출렁이는 물결을 련상시키는 만수교고기상점으로는 매일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과 함께 상점에 들어선 우리는 최창욱지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사람들속에서 만수교고기상점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최창욱: 인민들이 좋아하니 정말 기쁘다. 우리 상점에서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각종 물고기와 육류제품들을 봉사해주고있다. 우리 상점의 1층에는 신선한 물고기와 랭동한 물고기, 가공품매대들이 있고 2층에는 소, 돼지, 계사니, 칠면조, 메추리 등 고기와 알류, 고기가공품매대가 있으며 3층에는 불고기봉사를 위한 식당이 꾸려져있다. 우리 상점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모든 면에서 훌륭히 보장할 수 있는 현대적인 보관설비들과 판매조건이 그치지 않고 있다.

기자: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 만수교고기상점을 돌아보니 인민을 위한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이 뜨겁게 느껴진다.

최창욱: 정말 그렇다. 특색있는 상점간판으로부

터 화려한 실내천정장식, 안정감과 은은한감을 주는 봉사환경을 비롯하여 실용성과 미학적, 편리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우리 상점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더 많이 먹이시려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기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인 고기상점을 훌륭하게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상실의 아픔이 누구보다 크시었지만 원수님께서 아버지장군의 유훈을 심장깊이 간직하시고 고기상점건설에 깊은 관심을 두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기상점은 인민들이 즐겨 찾을 곳인만큼 구매자들

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며 공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러하여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설계와 시공,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미감과 주체의 건축학적으로 맞는 상업봉사지가 일떠설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우리 상점에 나오시어 상점내부를 돌아보시며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와 맛있고 영양가 높은 고기제품들을 봉사받을 인민들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잊을수 없다.

기자: 만수교고기상점에서 펄펄 뛰는 물고기와 맛있는 고기제품들을 봉사받는 인민들의 기쁨이 정말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창욱: 우리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 사무원을 비



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같으면 부유층들만이 먹는 칠갑상어, 자라와 같은 희귀한 물고기들과 각종 육류가공제품들을 요구대로 봉사받으며 인민이 주인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곤 한다.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곤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편의를 더 잘 보장해주기 위해 영예군인, 전쟁로병들과 결혼을 하는 세대들,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도 적극 진행하고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을 위한 상업봉사활동을 더 잘해나갈 것이다.



수필 세월이야 가보라지

온갖 꽃 만발하고 록음 방초 우거진 모란봉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흐르고있다. 맑고 푸른 하늘에 흰구름이 몽게몽게 피어오른 일요일, 사람들의 물결에 떠밀리워나도 아이들과 함께 모란봉에 올랐다.

송가정, 애련정, 최승대를 비롯한 정각들과 여기저기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 가족, 친척들끼리 모여 들놀이 하는 사람들로 여간만 흥성거리지 않았다. 즐거운 산책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건드러진 노래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 머리 회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로 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70, 80살이 넘는 로인들이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만은 청춘시절에 살고있는 로인들의 흥취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저 할머니들은 여느 날에도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곤 하는데 어떤 할머니들은 바드민턴도 꽤잘 치더군요.》

《목소리는 얼마나 멋있는지 전문가수행할하던 할머니들인줄 알았더니깐요.》

《나날이 조국이 젊어지고 사람들의 마음

도, 몸도 젊어지니 세월이 간들 아쉬울게 있나? 세월이야 실컷 가보라지요.》

세월이야 가보라지! 이 말속에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도 활력에 넘쳐 청춘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의 환희가 숨배여있다. 공화국의 고마운 인민적시책들, 곳곳에 일떠선 문화휴식터들에서 복락을 누려가는데 대한 인민들의 고마움이 숨배여있다. 절세위인을 모시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슬기로운 인민으로 된 긍지가 깃들어있다.

이전에 사람들은 세월이 감에 따라 늙어가는 것이 안타까와 가는 세월을 붙잡고싶어했다. 그래서 심심산골에 있는 신기한 약수를 먹고 늙은이가 젊은이로 되었다는 옛 이야기도 만들어냈고 온갖 잡병을 고치고 젊음을 되찾아 오려고 살려고 산삼이나 불로초도 먹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 성형수술 바람이 일어나는것도 다 세월을 붙잡고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반영하여 우주인이 가져다준 젊어지는 약을 먹고 수백년이나 살았다는 환상영화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세월이야 가보라지 하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르고있다. 김정은시대에 마음도, 몸도 나날이 젊어지고 생활이 흥겹게 흘러가기때문이라.

행복의 이 노래가 유원지와 집집의 창가들마다에 울려 퍼지는 속에 공화국은 날로 젊어지고 더욱 부강 변형해지게 될것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을 대원수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어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오랜 세월 간직해온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희한한 문수물놀이장에서 사람들은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한겨울에도 물놀이를 즐긴다. 미림송마구락부에서는 고무러시기의 무사가 된듯한 기분으로 말발굽소리 높이 울린다. 북유럽의 고산지대들에서나 볼수 있던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에서 문명의 눈갈기를 날리며 기쁨의 탄성을 터뜨린다. 이 시각에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는 령도자의 지극한 사랑속에 로인들을 위한 양로원이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공화국은 인민을 위해 날마다 변모되고 끝없이 솟구치고있다.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욱 휘황찬란하여 신심과 량만에 넘쳐 생활하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고 노래춤이 절로 나지 않을수 있랴. 비단 로인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이 즐겨 부르르고있는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

행복의 이 노래가 유원지와 집집의 창가들마다에 울려 퍼지는 속에 공화국은 날로 젊어지고 더욱 부강 변형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원산지구건설착공식 진행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원산지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일떠서게 된다.

원산지구건설착공식이 20일 갈마거리에서 진행되었다.

착공식에는 김용진 내각부총리, 김광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명호 강원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원산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착공식에서는 김용진 내각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원산지구건설중앙연합지휘부 현장지

휘부 책임자 엄태일, 황해북도려단 련장 림현일, 평안남도려단 정치부장 계정남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원산지구를 훌륭히 꾸리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뜻이며 간곡한 유훈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높은 뜻을 지니시고 원산지구를 세계적인 관광도시, 도시형성의 본보기로 꾸릴데 대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을 힘있게 불려일으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최근년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마식령스키장, 원산육아원, 애육원과 갈마거리공정, 원산지구등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원산지구에 일떠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애국의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전투장오로 달려나온 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

피우겠다는 비상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산악같이 떨쳐나 대장건설 첫시작부터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원산지구에서 선군조선의 위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착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착공식이 끝난 다음 원산지 갈마거리입구 살림집들을 비롯한 건설대상들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본사기자

(4면에서 계속) 이런 맹세를 다진 후 우리는 백두산담사행군에 두번이나 참가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천고의 밀림에서 며칠동안 천막을 치고 숙영도 하면서 밤이면 우등불가에서 백두산시도 숲고 빨찌산총도 추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온몸에 받아안았습니다.

그때부터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자란 저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아침이면 고향땅에 모신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으로 달려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을 진행하는것으로 첫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남조선 괴뢰들이 저희들에 대해 누구는 《처형》되었고 또 누구누구는 《감금》되었다는 엉터리 없는 거짓말을 붙여대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님들은 저희들이 조국에 돌아온 후 모두 잘못되었을것이라고 단정하고 우리 공화국

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이따위 악담질을 해대고있었던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분격하여 그 달음으로 평양에 올라와 기자회견을 가지고 원수님들의 두눈이 콧 뒤집어지라고 조국의 품에 안겨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우리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뽐냈어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체험하고 느끼고있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고마움을 격정에 담아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저희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이 텔레비존을 통하여 방영되자 우리를 길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벌리려던 원수님들은 썩소리도 못하고 속 기여들 어갔습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온 량강당이 온통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애들이 하나같이 씩씩하고 뽐뽐하다, 말을 참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제날 설움에 울고 천대와 멸시속에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정신육체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사회주의 내 조국이 정말 좋은 세상이라는것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를 이렇게 어엿하게 키워 내세워준 생명의 은인, 고마운 보호자인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보답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안겨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다치지 못하게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이제 학업을 마치면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설것을 열렬히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2월 16일 광명성절 아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뜻깊은 광명성절 경축공연에 출연할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달려오더니 우리를 외락 그러안으며 아버지원수님께서 우리모두를 평양에 있는 제일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하여 한동안 아무말도 못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동무들이 《야!》 하며 환성을 올릴 때에야 저희들은 교장선생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제 정말인가고, 사실인가고 묻고 또 묻으며 기쁨의 눈물을 터쳤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울고 담임선생님도 울고 동무들도 울었습니다.

조국에 들어선 첫 순간부터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뜨거운 사랑을 받은것만 해도 고맙기 그지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평양에 있는 일류급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셨으니 우리보다 더 행복한 학생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저주로운 남조선으로 끌려갔다면 지금쯤 먹고살 것을 찾아 길거리를 방랑하고 있을 자리를 얻어보고 싶지 판에서 해매고있을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저희들이 안긴 내 조국,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따사로운 어머니품이고 천만자식을 애지중지 안아키우는 화목한 대가정인가를 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대가정의 위대한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부모없는 아이들일수록 더 따뜻한 안아주시고 가슴속에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뜨겁게 보살펴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덧쌓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사랑과 정이 제일로 많으신 우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해빛 한점 스며들지 못하던 원수님의 악마의 소굴에서 저희들을 구원해주시고 태양의 빛으로 마음속 상처도 깨끗이 씻어주시며 오늘은 온 나라의 축복속에 선군시대의 대학생으로까지 몇몇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위대한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품을

떠나 우린 못 삽니다.

우리는 이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의 품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총직한 아들 딸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 대학교정에서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려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인재, 원수님께서 아시는 인재, 원수님만을 만드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 * *
네데를란드의 램브란트가 창작한 세계적인 명화 《불효자식 돌아오다》의 주인공은 아버지품을 떠났다가 돌아와 자기를 낳은 친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행운아로 수백년간 전설적인 존재로 간주되어왔습니다.

조국의 품을 떠났다가 죄만을 안고 돌아온 우리 9명의 청소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품속에서 세상이 다 아는 복받은 행운아로 다시 태어난 전설같은 이야기는 몇백몇 천년의 전설로 길이 새겨질것입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 문철

구정물같은 악담질로 자멸의 길을 재촉한다

긴 혀는 목을 감는 법이다

지금 청와대 안방주인의 반공화국대결악담질은 내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 집권자는 최근 여러 자리에서 그 누구의 《체제의 불안정》이니, 《고립의 길 자초》니, 《인권문제》를 더이상 묵인할수 없다고 고아대었다. 지난 19일에는 공화국의 자주적권리인 전략수습 탄도탄수중시험 발사를 놓고 《도발》이요, 《위협조성》이요 뭐요 하면서 《죽자적인 대응》과 《단호한 응징》을 부르짖다 못해 《공포정치》요, 《경악》이요 하는 구정물같은 망발도 토해냈다.

나이 60을 넘어 벌써로 망출에 들어선 치매증환자의 가련한 녀두리라고 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세상에 무서운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두집을 쓴 짐승이고 다른 하나는 미친 놈 칼자루 잡은것이라 하였다.

온갖 부정과 협잡으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남조선집권자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라 하였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극심한 인권말살책동과 파쇼통치를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국제적인 고립, 련

이어 터져나오는 청와대 비화들로 하여 심각한 통치위기에 빠져있다.

최근에도 남조선당국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거리에 펼쳐나선 유가족들과 시위대의 앞길을 경찰배스로 가로막고 고농도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시위대를 향해 마구 쏘아대어 수십명을 부상시키고 련행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오죽하면 경찰을 향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던 유가족들이 서로의 목을 노끈으로 련결해 묶으면서 《가족들은 여러번 죽었다.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 정말 죽고싶다.》, 《진상규명도, 《대통령》 면담도, 《시행령》 폐지도, 심지어 통행도 안되는 《대한민국》이 거지같다.》고 절규했겠는가.

남조선당국의 이같은 잔인한 탄압행위는 《아이들과 유가족들을 두번 세번 죽이는 야만행위》이고 인간의 삶,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하는 인권말살이며 남조선당국자는 인두집을 쓴 짐승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산 증거이다.

《유신》독재의 부활을 꿈꾸는 집권자의 파쇼적 폭행은 남조선 사회를 《암흑의 시대》, 《망령

이 배회하는 사회》로 만들어버렸다. 지금도 남조선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남조선은 오스벡집수용소이다. 민주주의의 오스벡집수용소이다.》, 《남북관계는 시한폭탄, 서민에게는 세균탄을 날렸다.》, 《퇴살아나는 《유신》 망령 끔찍하다.》, 《박(대통령) 2년을 통해 피물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저주를 퍼붓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는 물론 국내외정책문제들에 대하여 언제 한번 대에 따라 움직여본적이 없다.

체질적으로 사대의식이 골수에 배겨 상전인 미국의 눈치만 보아온탓에 지금 남조선당국은 국제적인 고립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의 《일본겨안기》와 조선반도를 둘러싼 유관국들의 대미강경조치들로 하여 남조선당국은 그야말로 망돌짤에 낀 보리알신세가 되고말았다. 《외교표류, 외교전략부재에 놓여 있다.》, 《먹통외교, 외교고립은 외교실체를 낳았다.》, 이것이 바로 안팎으로 고립에 처한 남조선당국에 대한 내외여론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어디 이뿐인가. 남조선 보수당국은 지금 나날이 드러나고있는 부정협잡스러운 진상과 특대형부정 부패사건들, 꼬리를 무는 《인사참사》 등으로 하여 통치기반이 밀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박근혜도 《보안법》 위반 철회하지 수사하라.》, 《무능한 《정부》는 참을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참을수 없다.》, 《당국은 한마디로 지리멸렬, 오리무중상태》, 《부정선거 웬말이나! 독재 《정권》 물러나라!》, 《못살겠다 다 모여라》. 이것이 바로 남조선에서 울려나오는 각계의 피절은 절규이다.

구정물을 뒤집어쓴 놈 꽃향기 맡아도 썩은 내로 안다더니 남조선당국자의 광기어린 반공화국망발들은 제 몸의 구린내를 인식 못하고 남을 탓하는 미친자의 객기밖에 달리 볼수 없는것이다.

예로부터 긴 옷자락은 다리를 감지만 긴 혀는 목을 감는다고 하였다.

남조선집권자는 푹푹히 알아야 한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어 반공화국악담질만 해대는 남조선집권자에게 차레질것은 파멸뿐이라는 것을.

동족대결의 극치를 보여주는 망발

정확준

지난 5월 14일 남조선집권자는 어중이떠중이들을 청와대에 모아놓고 그 누구의 《고립》과 《쇠퇴》, 《위협》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다 못해 북남관계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저들이 《북을 올바른 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느니, 《《동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방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있다.》느니 하면서 잠꼬대같은 소리를 잔뜩 늘어놓았다.

남조선집권자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어제날 돈 기호씨의 부활이라고 보아야 하겠는지 아니면 현대판아류의 환생이라고 보아야 하겠는지 듣기에 알수 없다.

그 누구를 저들이 바라는 《변화의 길》로 《유도》해왔다는것도 웃기는 노릇이지만 그 무슨 《동일준비위원회》라는것을 통하여 《실질적인 통일방

안》을 발굴하고 추진시켜 오는데 《심혈》 또한 많이 기울여왔다는것은 돌부처도 웃길 노릇이다.

《동일준비위원회》라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반공화국사이비모략기구라는것은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는 바지의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조직체인 《동일준비위원회》라는데서 《고안》하는 《통일방안》이라는것이 저들의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놓았던 《한반도신평로세스》나 《드레즈덴선언》, 《통일대박론》의 복제판밖에 더 다른것이 될리 없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의 진보적량심들앞에서 《동일준비위원회》의 반동일적, 반민족적체제를 감추어보려고 모지름을 써온 것뿐이었다.

밝은 대낮에 태양의 빛발을 손바닥으로 가리워 보겠다는것은 허황한 녀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민족에게는 북과 남이 이미 합일하고 내외에 공포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있다.

이 공동선언들이야말로 통일의 길에서 우리 민족이 항구적으로 들고나가야 할 통일의 대강, 기치인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남조선당

국이 계속 체제대결,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흡수통일》야망에 들떠있다면 종착점은 불과 불이 오고 가는 전쟁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게 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권자가 《북이 바른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면서 조선반도평화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것》이라고 낫도깨비같은 소리를 늘어놓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계속 저들주도의 《흡수통일》야망을 추구하겠다는것을 내외에 공포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공화국은 이미 《흡수통일》, 체제대결은 전쟁밖에 불러올것이 없으며 그속에서 대결광신자들은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라는것을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다.

동족대결에 환장을 한 나머지 초보적인 리성마저 잃고 입에 칼을 문채 뿔뿔이를 하고있는 남조선당국에게 묻지 않을수 없다.

그래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을 바라는가. 남조선당국은 푹바로 알아두어야 한다.

한사람이 리성을 잃으면 그 주변사람들이 해를 보는것으로 그치지만 동족대결에 열이 들뜬 집권당국이 리성을 잃고 헤덤빈다면 온 남녘땅이 재난리로 화한다는것을 말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남조선단체가 집권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가 당국이 극악한 반통일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0일 집권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다. 단체는 8.15. 6.15와 같은 중요한 력사적계기를 앞두고 박근혜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1. 박근혜는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욱을 해임할 의사가 있는가?

지난 3월 10일 정종욱은 《통일과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통일과 관련한 팀이 우리 통일준비위원회에 있다.》,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통일에 대해 연구하고있다.》고 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가 사실상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태가 번져지자 정종욱은 《통일준비위원회활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용어선택이 적절치 못해 위원회활동내용이 잘못 보도된대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평화적인 합의통일이 아닌 비합의적통일 즉 《체제통일》은 《북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일하겠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종욱의 발언은 단순한 용어선택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흡수통일》발언이다.

북은 당시 정종욱을 강하게 성토하며 《정부》

와 상충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핵심인물인 정종욱을 해임할 의사가 있는가?

2.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박근혜는 《흡수통일준비팀》이 있다는것을 알고있는가?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위원장도 박근혜이며 3번이나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깊이 관여되어있다. 따라서 《흡수통일준비팀》이 위원장인 《대통령》의 허락없이 운영되는 않았을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박근혜의 본심이 《흡수통일》이란 말인가?

《흡수통일준비팀》의 존재가능성만으로도 남북관계는 완전히 랭각되었다.

박근혜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의사가 있는가?

3. 만약 정말 《흡수통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면 박근혜 자신이 《흡수통일》 도기를 공식선언할 의사가 있는가?

북은 지난해 박근혜의 《드레즈덴선언》을 대결각본으로, 《흡수통일》 기도로 규탄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것이 아닌가?

박근혜는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실현의 실천적조치로 《5.24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는가?

《5.24조치》는 남북간의 모든 교류를 막고있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서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5.24조치》를 해제한다면 남북관계는 훨씬 탄력을 받을수 있다.

박근혜는 《흡수통일》을 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5.24조치》해제로 보여주는것이 어떤가?

본사기자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북의 변화》니,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니 뭐니 하며 《통일을 위해 투박투박 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앞서 집권자는 《북의 도발》, 《응징》, 《렬악한 인권상황》, 《고립》, 《쇠퇴》 등 북을 자극하고 모해하는 가시돋힌 발언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렇게 놓고보면 남조선집권자가 《투박투박 나갈것》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

누가 뭐라든, 북남관계야 어떻게 되든 《흡수통일》, 체제대결의 길로 한사코 가겠다는 소리다.

《투박 투박 가겠다.》 별로 생소한 소리는 아니다.

이전 집권자도 《기다리는 전략》, 《원칙고수》니, 《우보천리》니 뭐니 하며 《투박투박 가겠다.》고 줄곧 외쳐왔다.

투박투박 간 길인즉 《북변화》, 《북붕괴》를 노린 체제대결의 길이었다.

그것을 위해 이전 집권자는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들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 최후의 궁극적 목표》라는 망발도 늘어놓았으며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가상한 《비상통치계획-부흥》, 《통일대계탐색연구》를 조작배포하고 《통일세》니, 《통일항아리》니 하는 허무한 놀음들도 벌려놓았다.

북남관계의 파국으로 투박투박 걸어간 이전 집권자를 남조선인민들은 《유일하게 통일노력 안한 《대통령》》으로 랭인하고 조소했다.

그의 전철을 밟으며 현 집권자도 《북변화》, 《북붕괴》의 길

을 《투박투박 가겠다.》고 한다.

다른점이 있다면 이전 집권자가 《통일은 한밤중에 도적처럼 온다.》는 헛된 꿈을 안고 미련한 소처럼 투박투박 갔지만 현 집권자는 《북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떠들며 독발된 사과를 내흔들며 가고있다는것이다.

《신평로세스》, 《통일대박》, 《드레즈덴선언》, 《통일준비위원회》...

현 집권자가 만들어낸 이런것들은 마치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고 통일을 위해 뭔가 해보려는듯 한 인상을 주지만 취여짜면 《자유민주주의하의 흡수통일》, 체제대결이라는 구정물만이 푹푹

떨어진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우리의것, 민족의것이 하나도 없기때문이다.

《신평로세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처음 내놓은 말도 아니고 동서맹전시기 사회주의권을 무장해제시키고 붕괴시키려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이 만든 《헬싱키프로세스》에서 따온 우리 말과 외래어가 섞인 잡탕말이고 미국이 써준 각본일뿐이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에게서 《불신평로세스》, 《대결프로세스》, 《실망프로세스》라고 비난받은것이다.

《드레즈덴선언》, 이름그대로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여 북남관계에 기계적으로 이식해보려는 황당한것이다.

우리 민족의 분렬은 그 발생과 원인이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르며 따라서 통일의 주제와 시대적환경, 조건이 같을수 없다.

구체적인 실정을 떠나 맹목적인

사대관점으로 동족대결과 분렬을 부추기는 다른 나라의 《흡수통일안》을 옮겨다 《선언》이라고 발표하였으니 오죽하면 해외동포들이 《박근혜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하였겠는가.

《통일대박》,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건달뱅이들과 사기꾼들, 장사치들이 투전판에서 써온 《횡재》, 《행운》을 뜻하는 남조선항간의 속어인 《대박》이라는 말을 《통일》이라는 신성한 이름과 합성한 비속한 말이다.

더우기 이 말속에는 돈으로 모든것을 유혹하고 돈이면 만사가 다 된다는 황금만능의 저렬하고도 추악한 속물적근성이 진하게 배어 있는것으로 하여 《통일대박》은 나오자마자 만사람의 조롱을 면할수 없었다.

보는바와 같이 현 남조선집권자의 《통일정책》에는 제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북남관계가 어떻게 원만히 풀릴수 있고 민족의 통일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자기를 알지 못한채 《투박투박 가겠다.》고 한다.

도대체 어디로?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동족의 제의를 외면하고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의 외통길로 미혹하게 가려고만 한다.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겨레의 념원을 등진채 사대망국의 길로 거침없이 간다.

투박투박 가당게 될 종착점이 어디이겠는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김정혁



《체제통일》소동을 걷어치울것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북남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 - 《5.24 조치》

속지 않는 다

김윤식

모략적인 《천안》호 침몰사건을 구실로 남조선 전 《정권》이 이른바 《5.24조치》라는것을 조작해낸 때로부터 5년이 되어온다.

누구나 알고있는바이지만 당시 집권자를 위시한 남조선보수패당은 북과 남사이에 열려있던 통로들을 차단하면서 《북이 3억US\$ 정도의 벌금을 무는셈》이니 뭐니 하며 흰 소리를 쳤다. 보수패당은 이 《조치》라는것을 구실로 북남경제협력사업은 물론 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들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렸으며 지어 단체들사이의 통신연계와 기사 교류까지 차단하였다.

그런가하면 제3국을 우회한 물자반출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합동정부집단》이라는것을 내오고 부산, 평택 등지의 모든 세관과 항구들에 살벌한 경제망을 펴고 장부책과 물자들을 살살이 뒤지는 물음을 벌여왔다. 심지어 그 무슨 《자금차단》이요, 《접촉위협》이요 하면서 남조선사람들이 제3국에서 북이 운영하는 식당들에 가서 식사도 마음대로 할수 없게 오금을 박는 너절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보수당국의 마수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도 엄중히 뻗었다.

《신규기업유치와 공장 신축제한은 《5.24조치》에 따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서 공업지구의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지어 《개성공단은 중단해도 무방하다.》, 《인질사태를 초래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남측기업들의 인원과 원자재반출입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고 임의의 시각에 철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대한 비밀 지령까지 하달하였다.

《5.24조치》가 북남관계뿐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게 준 피해도 막대하다. 남조선인민들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5.24조치》발표이후 1년반동안에만 해도 북남민간협력사업에 참가하였던 남조선민간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액은 개성공업지구사업 축소, 북남교역과 임가공 중단 등으로 인한 직접손실이 27억 5 000만US\$, 간접손실은 74억 8 000여만US\$에 달하였다.

북남협력사업중단으로 물가상승, 외자유출, 기업 대량파산 등의 사태를 불러와 수십만개의 일자리

가 없어졌으며 6.15와 함께 활기를 띤던 남조선의 수많은 민간협력업체들과 단체들이 존재를 마쳤거나 파산의 운명에 처해있다.

오죽했으면 북남민간협력사업에 명줄을 걸고있던 남조선주민들이 살아갈 희망조차 잃고 자살의 길을 택하였겠는가. 결국 《5.24조치》라는것은 북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라는것이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졌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은 전 《정권》의 《대결유산》인 《5.24조치》를 5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그대로 붙들고 그 누구의 《사과》가 있기 전에 해제할수 없다고 앙탈을 부리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은 물론 여당인사들을 포함한 정치계와 경제계, 학자들과 언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속에서는 《5.24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과 개성공단국제화방침은 《5.24조치》와 충돌한다.》, 《국내 남북경협기

업들의 경제적피해가 막심하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이 말은 《5.24조치》라는것이 북남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것을 고발하는 목소리들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그 누구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두고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것은 그들에게는 오직 동족대결, 북남관계파국의 흥심박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은겨레는 《5.24조치》에 비긴 남조선당국의 대결적흥심을 똑바로 알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우익보수패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할것이다.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정치협잡꾼들
또 한차례 벌려놨구나
거짓말잔치판을
《북핵포기》, 《북인권》, 《공포정치》
밥먹듯 떠들어대던 그 청와대가
《리산가족》들의 상봉 마련해주자고
《천륜》이니 《아픔》이니
리벌의 비극이 가슴아프듯
노숙과 도둑 떼어대누나
문노니,
분렬력사에 파궤구를 내며
하늘길, 땅길, 바다길 다 열어놓은
그 6.15를 악의에 차 비방한건
누군데
케케묵은 《5.24조치》와
《흙수통일》 악담으로
화해와 단합의 기쁨속에

겨레가 오가던 그 길
차단봉 가로지르게 파연 누군데
동족의 가슴에 겨눈 총부리
그 총을 들고 무슨 《대화》라령
인가
《평양점령》을 떠드는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연습 불을 지피면서도
《리산가족상봉》을 뇌까리던 말인가
속지 않는다
그 녀드리 그 위선 그 거짓말을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가슴에
동족대결의 아픈 못 박고서도
아닌보살하는 서푼짜리 그 연기에
진정으로 동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겨레가 만나기를 바란다면
사대매국, 전쟁소동 걷어치우라
대결정책철회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이런일이 거역해나선자본의 귀책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입만 벌리면 《리산가족의 아픔》이니, 《천륜》이니 뭐니 하면서 그 누구때문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집권자가 《고령의 리산가족고통》이니, 《리산가족들의 아픔이 정말 큰데 우리의 대화제를 북이 거부하고있어 안타깝다.》느니,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니 뭐니 하며 황실 수설했는가 하면 통일부의 어중이떠중이들도 《천륜이라는 인도적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회피운 수작질을 하였다.

이것은 흩어진 가족, 친

척상봉을 파란시킨자들의 파렴치한 꾀이며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 적도발이다.

공화국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분렬의 고통을 안고사는 그들의 상봉을 실현하기 위하여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지나해에만 보더라도 공화국의 동포애적인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판문점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과 관련한 북남적실사실무접촉이 진행되었으나 《B-52》 전략핵폭격기편대를 조선서해 직도상공에 끌어들이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던것이 바로 남조선보수당국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자는 공화국의 선의와 야량, 성의있는 노력에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도전해나섬으로써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협력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모조리 박살내었다. 총포성

이 울리고 화학내 풍기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행사를 치를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리산가족의 아픔》이요, 《천륜》이요 뭐요 하면서 생색을 내고있는것은 겉으로는나 《인도주의》냄새라도 피워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하여 막다른 《정권》 위기를 수습해보려는데 그 불순한 기도가 있는것이다.

진짜 천륜을 저역하고 있는 장본인은 남조선보수당국이다.

동족들이 만나는것 그 자체를 범죄시하면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저들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려드는것이 야말로 천륜을 받아야 마땅할 만고대죄인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인도주의》라는 말을 녀름처럼 외우기만 할것이 아니라 동족끼리 오갈수 있는 길부터 터놓는것이 마땅할것이다.

문제해결에 뉘방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지난 17일 남조선통일부 장관 홍용표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기업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느니, 《(정부)와 협력하는것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이라느니 뭐니 하며 이러쿵저러쿵했다.

이런 최근시기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로임지불문제를 둘러싸고 날로 첨예화되고있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을 노린 발언이 아닐수 없다.

누구나 아는바이지만 지난해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형편과 국제투자자들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업지구 발전에 맞게 로동규정을 수정공포하였다. 새 로동규정시행은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의 합법적이며 정당한 법적권행사이며 최저로임기준도 이전 기준보다 별반 차이없이 낮게 정

해져있다.

북측은 이에 대해 관리위원회와 기업가들, 남조선당국도 알아들을수 있을만큼 여러차례 설명해주었으며 또 남측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수 있게 올해 3월부터 새 로임기준이 적용된다는것을 남측에 통지하였다.

이처럼 야량과 성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3월분로임을 지불해야 할 시점부터 남조선당국은 사사건건 북을 걸고들면서 남측기업들이 로임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압력을 가하고있다.

사실 남측기업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최저로임기준이 예상한것보다 훨씬 낮기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수 있으며 수정된 로동규정의 집행에서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내분히 고려하여 공업지구 발전에 맞게 로동규정을 개정공포하였다. 새 로동규정시행은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의 합법적이며 정당한 법적권행사이며 최저로임기준도 이전 기준보다 별반 차이없이 낮게 정

제로 될수 없다고 뻔치었다. 그러던 남측당국이 갑자기 돌변하여 《당국간협의》를 운운하며 사태를 험악한 방향으로 몰아가는것은 공업지구사업을 파란시키려는 고의적인 기도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까지 나서서 《기업차원의 단호한 대응》이니, 《정부와 협력》이니 하고 떠들어냄으로써 개성공업지구기업가들을 압박하여 공업지구를 대결마당으로 만들려는 보수당국의 불순한 속심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 남측기업가들은 개성공업지구가 《바람앞의 초불처럼 위태롭다.》고 하면서 부당한 압력놀음을 견어치울것을 당국에 간절히 요구하고있다.

3월에 이어 4월로임지불이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는 현 시점에서 남측당국이 계속 대결일변도로 나간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남조선 각계층 군중 광주민민봉기자들을 추모

5.18광주민민봉기 35돐을 맞으며 남조선의 광주민민봉기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진행되었다.

광주시민들과 로동자, 학생,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7 000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5년전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살인적인압박에 맞서 치렬한 싸움을 벌렸던 금남로에 각계층 군중이 지역별로 행진을 하며 모여들었다.

이제 이전 전라남도청 앞에서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추모모임이 있었다.

모임참가자들은 분수대앞에 설치된 무대에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의 합성을 웨치며 계엄군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던 그날의 투쟁을 재현하는 예술작품을 올렸다.

또한 광주봉기자들의 넋을 짓밟고 온 남녘땅을 파썸독압의 란무장으로

당국의 정치탄압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정보원 내 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당국의 정치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이 전 통합진보당 의원 리석기의 강의를 듣고 이에 동조하였다 하는 혐의를 들춰워 이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비롯한 3명을 구속하도록 검찰을 부추기는데 대해 언급

만평 창녀신세



본사기자

얼마전 미국 국무장관 케리가 남 조선을 행각하였다. 남조선집권자를 만난 자리에서 케리는 《북위협》과 《대북압박 공조》, 남조선일본사이의 관계개선문제 등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물론 케리는 지난해에도 남조선에 날아들어 그러루한것들을 논의하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른듯 하다. 지난해에는 북남고위급접촉이 이루어지고 북남관계개선 분위기가 전진하는것에 당황한 미국이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을 저들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 황급히 케리를 보내어 취했던 일일수였다.

그럼 올해에는? 공화국이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남조선에 호소하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도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제기한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역행하여 미국은 남조선과 연합한 북침행진쟁연습으로 대답하였고 다른견으로는 일본에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재침의 길을 열어준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참을수 없는 공화국이였다. 공화국은 외무성대변인담화를 비롯한 여러 담화와 성명에서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등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위적억제력을 강화해나갈것을 천명하였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그 일환이며 세기를 두고 변할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였다.

미국의 정계, 군부우두머리들

은 당황망조하게 되었고 미국에 죽기내기로 추종하던 남조선보수 집권세력은 공포에 떨수밖에 없었다.

미국 국무장관 케리가 남조선에 날아든것은 《강대국》이라는 상전의 체면을 살리고 하수인인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을 안심시키고 사기를 추켜세워 북침돌격대의 전면에 계속 내세우려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른 한편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따돌림당해 툭툭거리며 비오는 날 토방밀의 강아지신세로 미국만 쳐다보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을 다독이 기도 해야 하였다.

실제로 남조선의 집권자와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케리는 《동맹강화》와 《핵우산 보호》를 재확인하고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위한 《명분》을 확정하였다.

그와 함께 케리는 《북위협》을 구실로 《미일신동맹》을 합리화하면서 《미일신동맹에 의심을 가지지 말라》, 《일본과의 건설적인 관계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 쌍방이 역사문제에서 자제력을 가지고 받아들일수 있는 해결책을 바란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고 목표다.》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강요하였다.

미국이 바란다면 감량도 빠 다처럼 여기는 남조선보수집권 세력은 과거사문제와 일본과의 관계문제를 분리하여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던지...

결국 케리의 남조선행각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 재균형전략》에 남조선보수집권 세력이 무조건 복종하도록 압박시키고 내모는데 목적을 둔것이라는것이 일각의 평이다.

김연희

케리는 왜 날아들었는가

최근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새로운 개정과 같은 미국의 적극적인 뒤받침과 일곱집속에 기고만장해진 일본이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수상 아베는 참의원 본회의라는데서 《특정국》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목청을 돋구었다. 이보다 앞서 일본 방위상도 TV에 출연하여 《집단적자위권행사》로 그 누구의 미 싸일기지를 공격할수 있다는 나발을 공개적으로 불어댔다.

말하자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도와 전쟁에 참가한다는것이다.

한편 지난 14일 일본당국은 국무회의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률개정안》이라는것을 결정하여 일본이 《위기사태》라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가관인것은 법안에 조선반도유사시 《자위대》가 남조선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남조선당국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그 무슨 《평역국가 동의》 규정이라는것도 만들어놓은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규탄배격환바와 같이 남조선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틀어쥐고있는 상황에서 《평역국가 동의》 규정이 라는것이 일본 《자위대》의

침략책동을 막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위기사태》라는것 자체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데다가 더우기 《북조선 지역은 남조선의 동의대상이 아니다.》는 일본의 교묘한 망발은 조선침략기도를 버섯이 드러낸것이다. 결국 일본의 《안보법률개정안》이라는것도 본질상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재침략시도를 법화하여 정당화하려는 극히 위험천만한것이다.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의 무분별한 망동들은 미국의 《대아시아중시전략》의 돌격대로 나서서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먹어보겠다는 일본의 군국주의재침야망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지난 시기 《대동아공영권》 실현의 어리석은 야망밑에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짓을수 없는 반인륜적죄악을 남긴 전범국이며 자기의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이러한 일본이 지난달에 있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이라는 미국의 뒤받침

속에 어물쩍 《보통국가》로 둔갑하려 하고있으며 《평시에서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떠들며 해외침략의 날개를 펴고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로의 군국주의재침야망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버리지 않고있는 일본은 그 야망실현의 첫째 가는 고리로 공화국을 감히 어찌보려 하고있으며 이

한다는 맥빠진 소리만 해대며 미국과 일본상전의 눈치를 보는데만 급급하고있다. 지어 력사와 《안보》, 경제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얼빠진 케번만 늘어놓으며 옅은 일본의 재침책동에 부채질을 하고있다. 민족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대매국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 땅을 또다시 일본침략군의 발밑에 짓밟히게 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두 고두고 후대들의 저주와 손가락질을 받게 될 대역죄이다.

침략자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용서를 모르는것이 공화국이다. 일본이 주제넘게 《미일방위협력》을 떠들며 감히 공화국을 어찌보려 하다가는 백년수적 일본에 대한 조선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의 맛이 어떤것인지 후회할 기회도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분별없는 일본의 재침책동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에 아래도리가 후줄근해지도록 쪼갬했던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또다시 대결의 비린철을 고아낸다.

지난 20일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가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 점검》을 하면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초토화해버리라.》고 비린철을 뿔아냈는가 하면 같은날 해병대사령관이라는자도 연평도와 우도를 찾아 《일전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느니, 《빠조각 하나 남김없이 삼켜버리자.》는 등의 악담을 쏟아냈다고 한다.

가소로운 객기가 아닐수 없다.

얼마전 공화국은 병진로선에 따른 자위력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성공하여 군력강화의 최절정을 이루고 전략적타격수단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핵타격수단의 소형화, 다중화단계에 들어선지도

작전에도 당당히 대응할것이라는 공화국의 배짱에 미국도 뺨소리 못내는 형편이다.

상전들도 기가 질려 움츠리는 판에 하수인정도가 감히 누구를 어찌보겠다? 하루강아지 호랑이 무서워서인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지해병대사령관인 지하는자들이 까치배때기같은 날로강화되는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에 넋을 잃고 숨넘어가기 전에 고아대는 지랄병환자의 악청과 같은것이다.

불바다가 된 연평도는 과거가 아니다. 진짜전쟁맛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이 그 무슨 《용정》이니, 《보복》이니 하며 떠들어오 그것은 산송장의 녀드러일뿐이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건들건들하는 목숨이나 부지하러거든 동족대결의 비린철이나 돋구지 말고 자중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현

회고석에 앉은 《인권재판관》 국제무대에서 《인권재판관》 행세를 부리던 미국이 최근에 있는 유엔인권리사회에서 회고석에 앉아 세계각국으로부터 인권유린국, 인권폐허국의 오명을 받으며 수치스러운 망신을 툭툭히 당하였다.

유엔인권리사회의 정기적인 인권상황고찰의 레두리안에서 심의된 미국에 관한 보고서가 5월 15일 제네바에서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인권문제를 관련하여 총 348건의 문제가 미국에 제기된것이다.

꾸바, 이란 등 100여개 나라가 세계최대인권유린국가인 미국에게 죄를 따진것이다.

유엔성원국들은 지난해부터 급속히 늘어나는 흑인들에 대한 미국경찰들의 살해만행들을 지적하면서 미국에서의 경찰의 폭력과 인종주의 및 인간중요현상의 증대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퍼구스와 볼티모어 등의 도시들에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들의 사살로 일어난 주민들의 대중적인 항의시위를 미국당국이 빈번히 무력으로 진압하고있는것은 반인권유린행위로서 세계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이 《테로와의 싸

회고석에 앉은 《인권재판관》

움》이라는 구실밑에 감행하고있는 인권 및 자유권침해현상에 대해서도 유엔성원국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된것이 바로 오바마행정부가 공약하고도 판파나모의 감옥을 폐쇄하지 않고 있는것이다. 그곳에는 재판과 예심, 판결도 없이 갇혀있는 사람이 수십명이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대표는 《우리는 미국의 인권상황이 최근에 극히 악화되었다고 보고있다. 로씨야는 모든 정치적폭행에 대한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판파나모의 감옥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회의에 참가한 연설자들은 국제법에 배치되지 않아무인격으로 국내외에서 개인정보를 몰래 도청하여 가공, 리용하는 미국특수기관들의 행위를 비난하였다. 인권리사회성원들은 미국이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포함하여 인권분야의 기본국제조약들에 가입하려 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남의 《인권》문제를 논하기 전에 제 집안일이나 바로하라고 통을 주었다.

인권은 주권국가의 국권이 존엄이다. 이번엔 진행된 회의에서는 《인권》을 걸고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

는 미국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울려나와 세계사회계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조작한 《북조선의 인권에 관한 문건》과 같은 치외법권적인 법률을 그 어떤 조건부도 없이 폐지할것을 공화국이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는가 하면 니카라과는 미국이 모든 제재조치와 자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파괴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미국이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해외인물들을 몰래 억류하는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주권국가로서의 자국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무인기로 하여 사망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미국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까마귀 백로 홍보는 격으로 주권국가들을 모해하고 압살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인권》문제를 열을 올리던 미국이 세계 각국의 비난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뺨쪽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것을 보면 서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미국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응철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공동투쟁 선언

남조선인터넷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현대중공업로동조합과 전국금속로동조합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14일 현대중공업로조 사무실앞에서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공동투쟁 결의집회를 가지었다.

3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금까지 하청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일하다가 다쳐도 눈치를 보아야 했고 지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개탄하였다.

